



양양소식

군정방침

I. 활기찬 지역개발
 I. 독특한 관광진흥
 I. 풍요한 복지실현
 I. 찬란한 문화창달
 I. 절충은 자치구현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본격추진"

- 클럽이스트씨 최종선정... 2005년 오픈예정 -

우리군이 추진중인 동호골프장 조성사업이 지난 2일 실시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골프장부지 지명경쟁입찰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가칭)클럽이스트씨로 낙찰됨에 따라 본격적인 건설계획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일 (주)클럽이스트씨와 (주)케이엘산업개발, 동호컨트리클럽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동호골프장 부지 지명경쟁입찰에서 클럽이스트씨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동호골프장 건설사업의 최종 낙찰업체인 클럽이스트씨는 (주)덕구온천개발을 중심으로 새서울석유, (주)피스정보통신, (주)성신양회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클럽이스트씨의 대표업체인 (주)덕구온천개발은 골프장 부지 37만1천여평에 대한 1백9억8천5백만원의 예정가를 놓고 벌인 이날 지명경쟁입찰에서 1백21억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덕구온천개발이 제시한 1백21억원은 골프장 부지 1평당 3만2천5백원대의 가격으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지매입 계약을 매듭지어야 한다. 클럽이스트씨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동호골프장은 오는 2003년 5월까지 국토변경 이용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등 기본용역을 완료한 뒤 하반기 본격 공사에 착공, 2004년 11월경 준공될 계획이다. 오는 2005년 개장 예정인 동호골프장은 손양면 동호리를 중심으로 밀양리, 상양현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조성되며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이 마련된다. 클럽이스트씨가 우리군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전매금지 등 환매조건과 지역주민 80% 이상 고용, 공사 하도급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

- 민선3기 양양군 군정구호 확정 -

우리군의 민선 3기 군정구호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정구호 공모에 모두 1백36편이 응모해 이 가운데 우리군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담아낸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을 군정구호로 결정했다. 민선 3기 우리군의 총체적 모습으로 다가갈 이번 군정구호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골프장 건설 등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관광 1번지로서의 양양'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돼 있다. 이번 군정구호는 이진호 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인구 10만 양양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군정구호 선정과 함께 확정된 민선3기 군정방침은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질 높은 자치구현 등이다. 군은 이에 따라 군정을 비롯해 관내 29개 실과소에 군정구호 및 군정방침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 정 소 식

"양양군의회 제94회 임시회"

- 지난달 16~28일...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 -



<사진설명> 양양군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장면

의했다.

양양군의회(의장 박상형)는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달 23~25일까지 3일간 동호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5개 해수욕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위문, 격려했다.

또한 △낙산대교 건설현장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양양고 학사시설 △양양 양수발전소 △선사유적지 △하조대 관광시설 지구 △동호 골프장 조성부지 △양양종합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인구~광진간 교량시설 현장 등 10개 사업현장을 돌며 대대적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 등에 관해 심의했다.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단, 재무과, 환경복지과 등 실과소별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회를 갖고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6일에는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차판기장매인우선허가 조례안 △양양군육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 심

"축제통합사이트 운영개시"

- 9월부터 개설 ... 교통, 숙박, 음식 등 관광연계 정보게재 -

전국적인 관광축제의 고장으로 유명한 우리군이 관광객들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인터넷 통합사이트의 제작,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2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트 제작업체를 통한 지역축제 통합사이트를 제작해 송이와 연어축제 등 양양군 관광축제 전용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축제전용 통합사이트는 송이와 연어, 해맞이 축제 등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사전정보와 참가접수를 한번의 접속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기능으로 선보인다. 축제전용 통합사이트는 오픈과 함께 9월2일부터 연어축제 체험행사 참가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사이버관 형태로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 및 교통, 숙박시설, 특산물 시세 등 다양한 정보가 올려진다. 특히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홈스테이와 서면 용천리 복사꽃축제, 서면 오색리 산벚꽃축제 등 마을단위로 개최되는 마을축제도 소개해 인터넷을 통한 농촌지역의 테마관광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한 설악권의 관광 1번지로서 활기찬 양양건설을 위해 '1개 읍·면 1축제'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백사장 마라톤대회 대성황"



4백95명 전원 완주, 다양한 이벤트 눈길

제1회 백사장 마라톤 대회가 지난 3일 4백95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로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은빛 모래와 함께 건강미와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된 백사장 마라톤은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전원이 왕복 4km를 완주하는 등 피서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날 마라톤대회 우승자에게는 회 시식권과 연어축제 맨손잡기 체험행사 참가권 2매를 무료로 증정됐으며, 완주자 모두에게 기념메달이 주어져 참가의 의미를 높였다. 특히 이날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피서객들은 가족과 함께 입암 목도놀이, 바디페인팅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여름 피서를 즐겼다.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원은 “해수욕장이 단순한 해수욕 기능만 유지하기보다는 매년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올해 처음 개최된 하조대 백사장 마라톤 대회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특

<사진설명> ◇제1회 하조대 백사장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주자들이 출발에 앞서 손을 흔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큰사진)◇지난3일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입암 목도놀이 시연장면(좌측하단)◇지난 8일 우리군이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 비치클리너가 낙산해수욕장 일대를 말끔히 청소하는 모습(우측하단)

히 피서객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대회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변민속놀이 인기 입암목도놀이 공연 또한 우리군이 올해 처음 실시한 해수욕장내 전통민속놀이 시연 이벤트가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하조대와 4일 낙산해수욕장에서 현남면 입암민속보존회 주관으로 입암 목도놀이 시연을 펼쳐 관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치클리너 도입 해수욕장 청소 말끔 우리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해수욕장의 청소를 위해 백사장 전용 청소차량인 ‘비치클리너’를 도입해 청정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간당 1만6천㎡의 처리능력을 지닌 해변 청소차량 비치클리너를 배치하고 하루평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해수욕장 일대의 청소에 나서고 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비치클리너는 15cm 깊이로 모래사장을 헤치며 모래속에 숨어 있는 병조각,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며 백사장 모래 고르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관광기획 윤여경 담당은 “비치클리너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폐장후에도 깨끗한 해수욕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임 김호열 양양중·고 총동창회장 "

- 장학재단 설립 등 모교발전 사업 역점 추진 -



“양양중·고 동문들의 친목과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및 대화합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향토인재 발굴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양양중·고 총동창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2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신임 김호열 회장(60, 사진)은 개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은 만큼 총동창회 활성화와 모교발전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최된 양양중·고 동문 및 가족체육대회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들어간 김회장은 “개교 반세기를 맞는 뜻깊은 시기에 총동창회장으로 밀어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모교발전을 위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분골쇄신하겠다”고 피력했다.

신임 김 회장은 향토인재 발굴육성에 따른 학사운영의 활성화를 비롯해 양양중·고 사이클 부와 관악부 지원사업 확대 등 총동창회 차원에서 그동안 지원한 모교발전 사업의 연속적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동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양중·고 총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2억원의 장학재단 적립금 모금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동문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양중·고 총동창회는 그동안 모교발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자본금으로 1억1천만원을 적립하는 등 향토인재 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신임 김 회장은 서광농협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재경 양양중·고 동창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매출액의 5%를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빠른 모교발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가족은 부인 이순옥씨(57)와 1남4녀. 취미는 낚시.

"홀로섬이의 꿈이 영글어가요 "

- 한마음후원회 주관... 여름캠프, 제주도 체험견학 성황 -

‘신나는 여름캠프와 체험견학으로 작은 꿈들이 영글어가요.’

우리지역의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들로 구성된 ‘양양홀로섬이’ 2002 여름캠프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조산초교와 낙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꿈을 엮어가는 해변축제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낙산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번 여름캠프는 홀로섬이 55명과 한마음후원회(회장 박상형) 회원 25명 등 80여명이 참가해 후원자들과 돈독한 가족간의 정을 나눠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해변에서 펼쳐진 공동체놀이와 과정활동,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여름캠프 프로그램은 피서객들에게 홀로섬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단합을 과시하며 알찬 학습의 연장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으로 마련된 이번 홀로섬이 여름캠프는 조산초교에서 교실과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 후원에 나섰으며, 양양군은 문화상품권 80장을 지원해 홀로섬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양양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 박상형회장은 “후원자들과 함께 꿈을 가꿔 간다는 생각으로 캠프를 마친 홀로섬이들이 더욱 성숙된 것 같다”며 “봉사의 순수한 일념으로 이번 캠프에 참가하고 후원해준 회원들과 양양군 등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양양홀로섬이 한마음 후원회 김상호총무(현주컴퓨터 양양대리점)는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양양군에 회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제주도 체험 견학을 통해 행사에 참가한 홀로섬이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처럼 값진 기회를 홀로섬이들의 생활에 이어지도록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군의 지원과 회원들의 후원으로 홀로섬이들에게 제주도 체험견학 시간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훈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설명> 양양군의 후원으로 제주도 체험 견학에 나선 홀로섬이들이 후원자들과 함께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차세대스타 김동영 세계사이클 출전 "

- 호주멜버른 대회... 양양군청 메달사냥나서 -

양양사이클의 차세대 간판스타인 양양고 김동영선수(3년, 사진)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세계주니어 사이클대회에 출전,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며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주니어대표 1진으로 국가대표 발탁이 유력한 김동영 선수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따내는 등 차세대 사이클 선두주자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노도엽, 김경록 등 양양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지난 8일부터 경남 거제와 상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8·15 경축 전국사이클대회에 참가, 열띤 레이스를 펼치며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다.

"이색빙과 아이스감 인기 "

- 양양 청정해풍감... 6천개 판매 -

‘무더운 여름, 차디찬 아이스감으로 더위를 식혀요.’

우리지역에서 수확한 고품질의 감을 냉동해 생산한 아이스감이 피서객들에게 여름철 별미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내놓고 있는 ‘청정해풍 아이스감(사진)’이 무더운 여름철 색다

큰 빙과류로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의 입맛을 당긴다.

군생활개선회 원일전리 회원 6명이 농촌여성 일감갹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하하고 있는 청정해풍 아이스감은 고당도의 양양감을 홍시로 만든 뒤,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급랭시켜 토속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색 빙과류로 생산한다.

원일전리 생활개선회(회장 나목희)는 지난해 저장한 감을 재료로 올해 6천개의 청정해풍 아이스감을 생산, 전량 판매에 성공하는 등 향토 빙과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포장지당 1천5백원에 팔린 청정해풍 아이스감은 주로 찬물에 10분 정도 녹인 뒤 살짝 껍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별다른 피서 없이 무더위를 식히기에 제격.

지난 96년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한 청정해풍 아이스감은 해를 더할수록 수요가 급증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배탈 없이 무더위를 식히는 토속 빙과류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주민공청회"

- 지역주민 3백여명 참가,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 -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이진호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지역주민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양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그동안 입지선정부터 난항을 거듭해온 현북면 잔교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와 해당지역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적극 제안한 이진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주민공청회에 참석해주신 군민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슬기롭게 풀리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우리군의 최대현안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관련 주민공청회가 지난9일 3백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양양문화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관동대 환경공학과 김용무교수 주재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양양군 환경복지과 윤여준 과장은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행정문제 등 그동안 진행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매립장의 환경성 검토설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원도립대

이해승교수는 "양양군이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쓰레기 종합매립장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환경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 시공회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이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과정을 설명했다.

농어촌폐기물 조성사업과 관련, 현북면 기사문리와 북분리 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봉규씨는 "이번 조성사업은 불투명하게 시작된 입지선정 작업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폐촉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 재선정에 임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재발표에 나선 잔교리 주민대책위원장 김진하씨는 "해당지역에 주어지는 지원금 등 혜택보다는 진정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이 추진하는 최대 현안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주민공청회는 전반적으로 방청객들이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하는 등 활발한 공청회로 막을 내렸다.

"서면 폐광지 종합휴양지로 개발추진"

- 장승리 일대 5백87필지... 11월까지 타당성 용역 -

지난 80년대 국내 최대의 철광석 생산지로 번영을 누리다 폐광지로 전락한 서면 장승리 일대가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서면 장승리 철광석 폐광지 일대를 종합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면 장승리 일원 5백 87필지 2백27만6천㎡의 폐광지에 대한 개발청사진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휴양시설

의 종류와 규모,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번 용역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한 행정절차와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광지 개발대상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일양과 이같은 개발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에 따른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지난 94년 폐광된 서면 장승리 일대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보장 지원과 폐광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관계자는 "서면 장승리 폐광지 일대의 개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타당성 용역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추진 본격화"

- 강원도 긍정검토 밝혀... 추진위 구성 가시화 -

우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와 관련, 강원도가 제반규정 검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구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중인 김돈일 도의원은 지난달 23일 실시된 도의회 본회의 교육사회 상임위 환경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따른 도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규정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대결논리에 밀려 표류되던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 도의회 개원과 함께 제반규정 긍정검토 등 공식적으로 거론되며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돈일 도의원은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강원도로부터 긍정검토 입장을 얻어낸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마리를 풀어 가는 시초라고 생각된다"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요청과 관련법규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그동안 공론에만 머물던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도의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박용길·김돈일 도의원과 양양군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설치요구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이진호군수가 도의원과 번영회장 당시 지속적으로 추진한 현안 사업으로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축경기 활황세"

- 지난해 대비 82% 증가 ... 관광투자 기대심리 -

우리지역의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과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위축된 건축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이 조사한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에 비해 무려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지난 1~6월까지 상반기 4만8천7백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백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이 33건으로 전체 건축허가 면적의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했다. 이같은 건축경기 활황세는 설악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낙산도립공원지역에서 모두 16건의 새로운 건축봉이 일어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특히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대심리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심리 상승이 올해 상반기 건축경기 활황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이같은 건축경기 활황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낙산지역의 건축 잔여지에 대한 상업용 시설과 하조대 집단시설, 인구택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속적인 증가세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압류자동차 인터넷공매

우리군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동차의 인터넷 공매업무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체납처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인터넷 공매는 △차량압류 △차량인수 △차량가격 감정 △공매공고 △입찰신청서 접수 △입찰 △매각결정 △매각차량 권리이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군은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인터넷 공매업무의 운영요령과 유의사항 습득을 위해 서울시청, 속초시청 등 인터넷 공매업무 선지지 5개 자치단체를 견학한다.현재 군에 압류된 차량은 모두 9백21대로 압류관련 체납액은 7억4천3백원에 이른다.

이런 일 했어요!!!



<일본 연락소장 환담> 이진호 양양군수가 우리군의 일본 연락소장 예방을 받고 송이축제 등 실무문제에 관해 환담을 나눴다.



<양양중·고 동문체육대회> 제18회 양양중·고 동문 및 가족 체육대회가 지난 11일 양양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양양중·고 동문들이 기수별로 팀을 이뤄 우정의 배구 대회에 여념이 없는 모습



<해수욕장현지점검> 양양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임시회 기간 중 관내 해수욕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사이클 격려금 전달> 이진호 군수는 세계 주니어 사이클 대회에 출전한 김동영 선수를 대신해 후원회장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



<추억의 풀베기 대회> 친환경농업을 목표로 하는 풀베기 대회가 6개 읍·면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강현면 전진2리 마을회관 준공 "

- 최신식 지상3층 건물... 숙박시설 갖춰 -



<사진설명>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된 전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이진호 군수가 준공데이프를 절단하는 모습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면 전진2리 마을회관 및 숙박시설 준공식이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이진호 군수와 박용길, 김돈일 도의원 및 마을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선포인 마을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0년 강원도 실시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돼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진2리 마을회는 시상금을 투입해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과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6월부터 숙박시설 공사를 추진, 지난 7월20일 완공했다.

최신식 건물로 들어선 전진2리 마을회관은 연건평 2백97㎡, 지상 3층의 규모로 1층은 다목적 회의실과 최신 기종의 컴퓨터 5대가 설치돼 있어 정보화실로 이용된다. 또한 2~3층은 마을회 사무실과 9개의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어 피서철을 이용한 마을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진호 양양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마을회관이 최신식 건물로 준공돼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며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득증대가 이뤄져 번창하는 전진2리가

"양양군 친절왕"

- 장지선씨(지역개발과 건축계) -



주민들의 공복'을 원칙으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군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선발한 공무원 '친절왕'에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장지선씨(29, 여, 사진)가 선정됐다.

양양읍 기정리가 고향으로 지난 97년 입문한 장씨는 건축업무와 관련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미소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공무원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건축분야 민원업무를 친절하고 손쉽게 안내하는 그의 모습은 친절 자체가 일상적 생활로 다가오며 건축계를 찾는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맞고 있다. 친절이 몸에 밴 듯 자연스레 민원인을 대하는 장지선씨는 "평소 업무처리와 같이 민원업무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한 것뿐인데 친절왕에 선정돼 부끄럽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는 가치관으로 6년째 건축관련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장

씨는 하루평균 40~50명의 민원인을 대하며 언제나 밝은 표정의 친절한 미소로 민원업무를 처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원업무가 몰릴 경우, 1백명 이상을 맞을 때도 있다는 그는 "민원인들 대부분 낮은 용어와 업무의 정확성을 몰라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우선 민원의 성격과 담당부서 등 기본적인 성격을 알려주고 업무에 임하면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깔끔하게 처리된다"고 말한다.

생활 전반에서 친절을 실천하고 있는 양양군청 친절왕 장지선씨는 자신의 소신대로 지금껏, 원칙을 통한 업무처리가 친절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지난 97년 산림과에 잠시 근무하다 지금껏 건축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건축분야가 매력 있고 도전해 볼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 선택했다"며 "생각지도 않았지만 우리군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만큼 주민들의 공복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1남4녀중 장녀로 만말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장씨는 지난 1일 월례회에서 친절왕 선발에 따른 시상식을 갖고 이진호 군수로부터 표창과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상으로 받았다. 일상적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친절을 옮기고 있는 장지선씨는 '친절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며 건축분야 여성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낙산배 전용포장지 개발 성공"

- 1백만개 농가보급... 풍작으로 해외수출 전망 밝아 -



해풍을 머금고 자란 고품질의 '낙산배'가 개화기 생육작황 호조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풍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낙산배 전용 포장디자인 개발에 성공 일본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지역의 명품 과일인 낙산배 전용 포장디자인 개발에 성공해 의장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외 출하를 위한 소포장(10kg, 7.5kg) 6천매를 제작, 국내 및 일본에 출하했다.

지난해부터 낙산배의 이미지 제고와 대외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에 들어간 낙산배 포장디자인은 특수처리 2중 봉지를 씌워 배의 탐스런 모양과 고당도 품질을 유지해 낙산배 생산 이후 처음으로 5백kg을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낙산배 전용 포장디자인 개발 성공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배 특수처리 2중 봉지 1백만개를 관내 배농가 45가구에 보급하는 등 생산력 증대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설명> 농업기술센터 김순정 담당이 최근 전용포장디자인 개발에 성공한 낙산배의 생육작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특히 올해 생산될 낙산배는 개화기 초기의 기상양화와 균형적 안정착과는 물론 적정한 강우량, 일조지수에 의한 조기 세포분열비대 등 좋은 생육작황과 태풍, 강풍피해 감소와 병해충 철저 예방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동계전정, 적정량의 시비관리, 종합적 친환경 병해충 방제관리, 초생재배 등 체계적 종합관리를 통해 고품질에 승부를 거는 한편 수출전문 업체를 선정, 해외수출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토종 배의 경우, 일본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등 선호하고 있어 낙산배의 해외수출 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양양백합 일본서 인기"

- 화훼연구모임 중심... 지난달 7천본 수출 -

현남면 죽정자리 김상기씨를 비롯한 화훼연구모임에서 생산, 출하하는 백합을 비롯한 화훼 작물이 일본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등 주요 해외수출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일본에 본격 수출을 시작한 양양지역 화훼작물은 해풍과 적당한 일교차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화색이 선명하고 절화장이 길어 고품질로 인기를 얻고 있다. 양양화훼연구모임

과 농가에서 수출한 백합 물량은 현재 7천여본으로 1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수출증대 가능성을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만여본의 백합을 수출할 계획이다. 양양화훼연구모임의 이번 일본수출은 특히 회원들 전체가 고품질의 백합 재배 기술 습득과 연구에 몰두한 결과로 품질구별에서 까다로운 화훼선진국 일본시장을 공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사/정/보	
<p>- 벼농사 후기병충해 방제 - <후기병충해 적기방제 고품질쌀을 생산합시다> - 잎도열병 방제를 소홀히 하였거나, 잎도열병이 발생한논, 질소질비료를 많이 준 논에서는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니 반드시 보완방제를 실시 합시다. -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흑명나방 등은 이삭도열병 방제시 동시방제하여 피해를 줄입니다.</p> <p>○ 이삭도열병 - 발생전망: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 질소비료를 많이 준 논은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됨 - 발생적기: 1차 방제후 이삭패기가 90%되었을 때(보완방제) - 방제방법 · 침투성수화제(논브라, 사보라): 이삭패기직전~이삭편후7일까지 · 침투성수화제(빔, 디데이, 가야빔, 백만석): 이삭패기7일전~직전 · 일반유제(하노산, 나도산): 벼이삭이 2~3개 보일 때 1차 방제를 하고 5~7일후 2차 방제 · 침투성입제(키타진, 후치왕): 이삭패기 7~10일전 살포(10a당 4kg) 논브라, 사보라: 잎쭈목도열병, 이삭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 동시방제 가능</p> <p>○ 잎집무늬마름병 - 발생조건: 장마철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병이 급속히 발생 - 발생적기: 병든포기 비율이 20%정도 일때가 방제적기 임 - 방제방법 · 약을 뿌리때는 병무늬가 있는 밑부분까지 약액이 고루 묻도록 충분한량 살포 · 적용약제: 몬세렌(수화제), 바리문(액제), 알빌(유제) 등</p> <p>○ 멸구류 - 발생조건: 7월 중순경 기압골을 타고 날아오며 고온지속시 세대증식 앞당겨 짐 - 방제요령 · 이삭도열병 방제시 전용 살충제를 혼용하여 살포 · 적용약제: 밧사, 비대, 멸사리왕, 아프로밧사, 한그물, 다갈수화제</p> <p>○ 흑명나방 - 7~9월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올 때 외국에서 날아옴, 벼 이삭패기 전후 비료성분이 많은 잎새이 짙은 논에서 먼저 발생, 방제 소홀시 등숙율이 떨어지고 미질이 나빠짐, 방제법: 포장내 피해율이 1~2개 보일때 전용약제 살포 · 전용약제: 파단(수용제), 다갈(수화제), 엘산 등</p>	<p><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p> <p>◆ 표시방법</p> <p>▷ 표시대상: 모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 국산농산물: 국산 또는 시·군명 표시 ▷ 수입농산물: 생산 국가명 ▷ 농산물가공품: 원료농산물, 배합비율과 원료생산 국가명 ▷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병형, 유전자병형 포함, 유전자병형 포함가능성 있음 ※ 포장품은 포장재 및 프리커, 산물은 스티커 및 풋말로 표시</p> <p>◆ 위반시 처벌내용</p> <p>▷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유전자변형농산물 적용품목</p> <p>▷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p>

<p>문화유적 탐방</p> <p>- 동해신묘(도기념물 73호)-</p> <p>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낙산해수욕장 길 입구에 있는 동해신묘는 나라에서 풍농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당초 1370년(고려 공민왕 19) 강</p>	<p style="text-align: right;">우리마을 유래</p> <p><29> 서면 영덕리</p> <p>- '원사의 덕'이 충만한 마을 ... -</p> <p><마을유래> 옛날부터 마을 주민들은 동리가 우형국이라 하여 원사의 덕이 충만하리라는 연유에서 리명을 붙인 것이다.</p> <p>□ 이왕골 : 새이양아치 서남간 공수전리와 경계에 있다. □ 배나무골 : 큰양아치 동쪽골이다. □ 소리골 : 큰 양아치에서 세번째 아랫골인데 큰소리골과 작은 소리골이었다.</p>
--	---

릉에 건립되었는데 1490년 (조선 성종 21) 수군만호영이 대포성으로 이전될 때 함께 이전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1800년대 강원도 관찰사였던 남공철이 중수했으며 봉과 가을에 모시는 제사는 190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사주를 받은 양양군수 최종락이 동해묘의 신위를 신묘 뒤편에 묻어버리고 동해묘를 완전히 철파해버려, 남공철이 중수 때 새겨 놓은 동해신묘중수비만 남아 있었다. 양양군은 1993년 동해신묘 터에 13평 규모의 정전 한 동을 복원했다. 조선 정조 때는 어사 권준이 상주하고 도관찰사가 직접 중수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동해신묘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 큰양아치 : 앞뒤에 大小 재가 있는데 마치 개미허리같이 생겼다하여 큰 양아치 작은 양아치로 불리운다. 소리골 남쪽에 있다.
- 산야골 : 영덕리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곳이며 평지이고 산야가 울창하여 산야골이라고 하고 현 영덕리 본동이 이곳에서 형성되었다 한다. 큰 양아치 넘어 서쪽 첫마을이다.
- 진고개 : 산야골과 본동의 사이고개가 진고개이다. 큰 양아치 동남간에 있다.
- 병이둔지 : 부영새 형국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38교 앞, 안말 서쪽에 있다.
- 큰 골 : 산야골 서북간 안에 있다. 원골 이름이다.
- 벚나무 : 큰골로 올라가는 남쪽에 있다. 벚나무가 많다.
- 피나무골 : 벚나골 북쪽 다음골이다. 피나무가 많다.
- 가래나무골 : 덕말로 가는 북쪽골이다.
- 덕 말 : 인제군과의 경계에 있는 복개봉 밑 마을이다. 가래나무골 북쪽에 있다.
- 쇠막골 : 우사를 지어놓고 소를 방목하였다 한다. 덕말 안에 있다.
- 주춤바위 : 쇠막골 북쪽에 있다.
- 폭 포 : 산야골에서 북쪽으로 1km가량 올라가면 큰폭포, 작은 폭포가 있다.
- 가리막골 : 망대봉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 빨쥐골 : 암벽에 굴이 있으며 그 굴에 박쥐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산야골 서쪽에 있다.
- 구약골 : 점터가 있다. 산약골 남쪽에 있다.
- 점 골 : 구약골 서쪽에 있다. 산림이 무성하고 쇠를 놓이든 점터다.
- 검은골 : 마을 동남간 강 건너편 웅소리와 의 경계골이다.
- 안 말 : 본동 말 이름이다.
- 버덩말 : 안말 서쪽에 있다.
- 작은벽실골 : 서림리 벽실골 아래에 있다하여 아래 벽실골이다. 안말 남쪽에 있다.

법률상담

-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 -

<문> 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방사선과의 인원은 3명이며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직이 아닌 사람 두 명은 08시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일과를 마친 후 퇴근을 하고 당직인 사람 한 명이 17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30분까지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는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08시30분에 출근을 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의 업무는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주로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직비는 업무의 양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당직수당이 병원업무의 특성상 당직시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직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는 야간의 당직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3다46254 판결;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그리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분류 표시 : 노동법 >> 임금 및 퇴직금

잡 / 깐 / 만!

<양양군 선거 관리위원회>

○...2002.12.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주민은 물론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됩니다. - 기부를 할 수 없는 기간 :2002.6.22~12.19(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 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정당(연락소 포함),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그 외 누구든지 위의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기부행위를 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릉대 최고 경영·정책과정 모집>

○...강릉대학교 경영·정책 과학대학원은 8월 말까지 제15기 최고 경영·정책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25명 내외 -지원자격 : 학력쭉성별 제한 없음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강릉대 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 ☎033)640-2081

<사건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

○...경찰은 2001.12.10 [사건청탁안하고 안받기] 운동 실천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건관련 청탁행위 근절을 선언 하였습니다.각종사건과 관련한 외부인은 물론 동료 경찰관의 청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기로 다짐하는 등 청탁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경찰상을 확립하겠습니다.사건 관련 문의는 반드시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속조경찰서 ☎033)631-1118국민들도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사건 청탁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병무 민원사무 처리절차 개선>

○...2002년 7월1일부터 병무민원 처리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민원신청(접수)기관 : 지방병무청(사무소)으로 접수기관 일원화, 시군구 접수 지방청(사무소) 송부 및 처리제도 전면폐지, 지방병무청(사무소) 민원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서식 출력 - 민원서류 결과 통지 : 민원처리 인터넷 온라인 접수 및 실시간 공개대상 민원 서류는 컴퓨터 통신(E-mail, 핸드폰) 이용 문자 메시지로 통보, 민원처리 결과를 컴퓨터 통신 (E-mail, 핸드폰)으로 통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27

<민선3기 출범기념 복권발행>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16시쭉도가 연합하여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54회차 자치복권은 총90억원 발행하여, 6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판매됩니다.
○...내고장 발전도 돕고 행운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자치복권!!강원도청 ☎033)294-2122

행정단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바,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세부추진계획>

-집중 영치기간:2002.8.26~9.30
-영치작업 시간:매일05:00~21:00 사이 수시 실시
-일정별 집중영치 지역 : 8.26~9.7 (12일간):양양읍, 9.9~9.11(3일간):서면, 9.12~9.14(3일간):손양면, 현북면, 9.16~9.19(4일간):현남면, 강릉시(주문진),9.23~9.30(7일간):강현면, 속초시

<지적공부 및 토지변경 등기 무료 정리>

○...창고, 주유소, 양어장, 주차장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무료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및 분할) 완료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축락한 후 등기필증을 보내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 지적담당(Tel 670-2261)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정 및 교부내역>

○...보조금 신청액 : 700만원 - 자료수집 사진촬영 및 인화, 인쇄,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
○...보조금 사정 : 주전골 잡지 발간비(자료수집, 촬영, 인쇄비 등), 금년도에 한하여 지급하고 향후에는 광고유치 등 자체수입 및 마을기금을 통해 제작도록 조치-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 100만원
○...보조금 교부액 : 600만원 - 주전골]잡지 발간비(4회) 보조